

전남도,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 전수검사

환자와 밀폐공간서 2시간 이상 2m 내 유지한 경우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위해 의심증세 없어도 실시
미검사 22명 외 보성환자 접촉 45명도 검사 방침

전남도가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열 등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 검사하는 정부 지침보다 한 발 앞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남도는 11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삼성병원 등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 26명 가운데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22명은 물론 10일 확진 환자로 판명된 보성 60대 남성의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접촉자 45명에 대해서도 메르스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확진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2시간 이상 2m 내를 유지한 경우를 말한다.

10일 확진 환자로 판명된 A(64)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4번 확진 환자(35)와 접촉했으며, 이후 심야고속버스로 광주 광천터미널에 도착한 후 다음날인 5월 28일 새벽 보성으로 돌아왔다. 이후 자신의 직장에 정상 출근하고 5월 30일 식당, 5월 31일에는 미사, 6월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조사, 6월 6일 여수시 조카 결혼식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13명, 부인(60) 및 마을주민 등 32명과 밀접접촉했으며, A씨의 이동경로에는 모두 750여명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이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22명과 함께 A씨의 가족, 직장동료, 마을주민 등 45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A씨 확진 전까지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기 전까

지 1일 2차례 발열을 확인하는 능동모니터링만 해왔다.

전남도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은 “밀접접촉자라도 발열 등 의심증세가 있어야 메르스 검사를 하는 정부 지침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A씨가 지난 8일 음성으로 나온 원인과 관련 “메르스 진단은 가래로 해야하는데 당시 검사에서 가래를 채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으며, A씨 격리 자체와 관련 “보성군보건소가 A씨가 음성으로 나오자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뒤 격리가 아닌 모니터링을 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전남도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접촉자는 모두 26명이며, 이 가운데 21명이 자택 격리, 2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3명은 자택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이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안타깝고 송구스런 결과가 나왔다”며 “중앙정부의 뒤늦은 통보를 받은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충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개선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메르스 함께 이겨냅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1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협력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메르스 극복 공조 행정력 총동원

U대회 성공 개최 위해 확산 차단 ‘공동협력문’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메르스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메르스를 반드시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협

력문’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양 시·도가 기존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문 만드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시·도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막연한 공포감은 떨쳐 내셨으면 한다. 생업 중사에 차질이 없도록 과학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메르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감염 위험 속에서 최

전방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면서 “이제는 시·도민이 적극 협력해 주셔야 본인과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협약문을 통해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을 위해 의료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등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또 광주 U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선수

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 시·도민이 메르스 사태에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물심튼 없는 방역망을 구축해 메르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서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방역대책은 물론 상호 정보 공유와 의심환자에 대한 치료 등 전 과정에서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주요 관문 발열감지기 확대 설치

광주시가 주요 관문에 발열감지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메르스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인접 전남지역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첫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11일 “전날 광주송정역에 발열감지기 2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날 광주터미널 2대, 광주역과 광주공항 각 1대 등 4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발열환자 선별 진료소는 기존 병원 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발열환자에 대한 선별 진료가 들어갔다. 또 일선 병·의원들의 출입구를 1곳으로 단일화하고, 발열 체크 후 열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

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이 없는 방문객에 한해 팔목 등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선별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메르스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면서 “인근 전남과 전북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광주만큼은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동원돼 하루 24시간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범인 체포시 체온부터 측정…메르스 증상 확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장에 단독으로 수용한 후 3시간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체크리스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

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체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해 해당 내용을 체포자의 신체상태를 기록하는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체포자가 체포 당시 열이 있거나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체포자와 경찰관 모두 N-95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체포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하고, 3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연합뉴스

“불안 심리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 엄단할 것”

광주 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 이득을 노려 거짓·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메르스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같은 심리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물품으로 공기청정기를 들었다. 그는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이용해 알뜰한 상술을 벌이면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감염 우려 격정마세요…‘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 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런 감염 위험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곧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과 함께 연세회의를 열어 국민안심병원 운영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국민안심병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와 초기 증상 구분이 쉽지 않은 각종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하고 폐렴 의심환자는 1인 1실 방식으로 입원시켜 메르스 전파 위험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5. 6. 8(월) ~ 19(금)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신ID! 대신프리모

남가발
대신프리모가발